

담당부서 :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	평생교육과장	김명주	2133-3960
	평생교육기획팀장	김유성	2133-3962
	담 당 자	김다혜	2133-3965
	기획조정국장	이경아	719-6089
	홍보대외협력팀장	황미연	719-6097
	담 당 자	김혜연	719-6418
사진없음 ☐ 사진있음 ☒ 쪽수 : 2쪽 *행사후사진제공	관련홈페이지	http://smile.seoul.kr	

서울평생교육진흥원, 시청자미디어재단과 MOU체결

- 25일(금),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-시청자미디어재단 업무협약체결
- 서울시민 평생학습 밀착형·맞춤형 미디어 교육 지원 등 위한 업무협약
- 업무협약을 통해 ‘평생학습 통한 시민력 향상’과 ‘미디어 시민주권 제고’ 기대

□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(원장 김영철)이 시청자미디어재단(이사장 신태섭)과 시민 밀착형·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○ 업무협약식은 25일(금) 11시부터 마포구 소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다.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, 이경아 기획조정국장, 황미연 대외·홍보팀장, 시청자미디어재단 신태섭 이사장, 김혁 시청자진흥본부장, 장영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장 등이 참석한다.

□ 주요 협약 내용은 ▲미디어 교육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지원 등 제반 협력 ▲시민참여·실천형 평생학습 환류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▲서울시민의

미디어 주권 향유와 시청자로서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반 교류 및 사업 협력
▲지역·계층 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공익 활동 공동 진행 등이다.

- 한편,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「서울은 학교다」라는 슬로건 아래 ‘서울자유시민대학’, ‘모두의학교’, ‘동네배움터’를 운영·지원하며 서울 전역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전환하고 있다.
 - ‘서울자유시민대학’은 2017년 12월 서울시에서 운영 위탁한 종합 교양대학으로, 지난 4월 10일 종로구에 개관한 본부 캠퍼스를 비롯해 서울 5개 지역에 권역별 학습장(▲시민청 ▲뚝섬 ▲중랑 ▲금천 ▲은평)을 두고 있다. 또한 28개 대학과 연계해 400여 개의 수준 높은 인문학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.
 - 2017년 10월 금천구에 문을 연 ‘모두의학교’는 시민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센터이다.
 - ‘동네배움터’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사는 동네 근처의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바꾼 근거리 배움터다. 올해 서울시 15개 자치구 53개소가 운영 예정이다.
-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5년 12월 개정된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방송·미디어 교육 운영, 시청자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.
- 한편, 김영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 밀착형·맞춤형 교육을 추진, ‘평생학습을 통한 시민력 향상’과 ‘미디어 시민주권 제고’에 앞장서겠다”고 밝혔다.